

韓國 古小說發達簡史

蘇 在 英*

目 次

- | | |
|------------------------|------------------------------|
| 전 언 | III. 전후의 사회변동과 소설의 변모(조선 후기) |
| I. 소설발달의 이전단계(고려조 이전) | |
| II. 본격적 소설시대의 도래(조선전기) | |

전 언

우리 고소설문학에 대한 연구는 김태준의 조선소설사(1933)를 기점으로 하면 60년의 역사를 가진다. 그간 많은 작품과 작가가 새로이 발굴 소개되고, 작품을 분석 연구하는 방법도 다양화되었다. 그리고 여러 선학들에 의해 여러 권의 소설사 내지 소설론이 출현하였다. 소설사를 체계화하는 가운데서 가장 어려움에 부딪치는 것이 목차의 설정문제인데, 그 까닭은 고소설은 작자가 밝혀져 있지 않거나 여러 이설이 있다는 점, 작품의 비중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 국문과 한문의 표기상의 선후문제, 일본의 조정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소설사에서 보면, 시대를 왕조중심으로 분류하거나 문학사처럼 문화적 발달 내지 식물성장사적 구분법으로 나누는 외에, 작중인물의 행동양식에 따르거나 문자의 발달 등에 의거하는 등 다양한 분류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목차 분류상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장르의 성장이나 작품 발달의 계기를 중심으로 하여 <고려이전>·<조선전기>·<조선후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중요항목 별로 단선 나열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한다. 그 까닭은 제한된 지면의 簡史이므로 설명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적 논술을 제하고자 함이요, 그 둘은 짧은 발달사로 압축하자면 단선적 항목 나열이 시각적으로 효과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려이전>에서는 본격적 소설발달의 전 단계를 확대하는데 관심을 두고, <조선전기>는 한글의 창제로 인한 표기매체와 문화적

*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教授

변천에 관심을 두었으며, <조선후기>는 양란 후 사회변동과 그것의 작품에서의 수용양상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각 시기마다의 시대적 개관은 생략하고, 각 항목은 중요 작품을 나열하고 상관관계를 평가하는 정도로 설명을 덧붙여 150매의 한정된 우리 고소설의 發達簡史를 기술하고자 한다.

I. 소설발달의 이전단계(고려조 이전)

1. 說話와 小說

우리 고소설의 근원을 소급해 가면 아무래도 神話時代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의 창시신화인 檀君神話가 비록 형성된 것은 후대적이라 할지라도, 시대적으로는 가장 앞선다. 현전하는 단군신화는 三國遺事나 帝王韻記 그리고 東國輿地勝覽 등에 수록되어 전하는데, 그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환인-환웅-단군’ 삼대에 걸친 하나의 서사적 맥락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그후 고구려의 개국신화인 東明王神話에 이르면 해모수와 하백, 주몽과 유화, 금와왕과 송양에 이르는 갈등적 요인까지 내포되어 더욱 다양한 변모를 보여준다. 이 작품을 서사시화한 李奎報의 東明王篇은 신화가 지니는 무한대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한 영웅적 주인공의 신성체험 과정을 통하여 소설적 공간의 확대가 얼마만큼 신축적인 것인지를 체험케 한다.

신라국으로 전이시켜 생각해보면 朴赫居世·昔脫解·金闕智神話는 상당히 규격화된 서사체임을 느끼게 한다. 물론 난생의 남방신화계통이라는 점에서는 앞서 주몽신화나 金首露神話와 궤를 같이하지만 통일신라에 이르는 정통국가로서의 전승의식이 작품을 위축시켜 온 힘을 느끼게 한다. 朴赫居世와 關英, 昔脫解와 阿尼夫人, 金闕智의 영웅화과정은 신화적 탈각만 이루어진다면 각각의 서사성 가운데 씨족 전승의 특이한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가락국의 金首露王과 許黃玉의 신화체제도 탄생과 결혼 그리고 씨족전승의 영웅서사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특이한 제의적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들 신화체계에서 보면 해모수와 하백의 경술, 주몽과 송양의 격투, 탈해와 호공의 다툼 등 갈등의 형성단계가 주목되고 비록 혼사장애는 없지만 신성혼인을 통한 영웅소설의 기본골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조로 접어들면 신화는 이미 신성성을 거세당하고 신화적 제 모티브도 전 대에서 차용해 오는 등 짜깁기식 구성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 좋은 예가 고려국조신화다. 虎景이 康忠을 낳고 강충이 다시 寶育을 낳고 그의 딸 辰義가 숙종(당)과 결합하여 作帝建을 낳고, 작제건이 용녀와 결혼하여 龍建을 낳고, 용건이 夢夫人(한씨)과의 사이에서 개국시조인 王建을 낳기까지 6대에 걸친 고려사 세보의 신성화 과정에서 보면 화소에서도 신라의 西岳捨溺夢(文姬)·居陀知에서 빌어오는 등 재창작적 흔적이 완연하고 이미 불임기에 접어든 신화의 신성미가 사라지고 차츰 민간전승 내지 民譚의 형태로 변모되어 가고 있음을 본다. 조선조의 龍飛御天歌같은 서사시가 그 연원을 공간적으로 중국역사에 이

어도 보고 시간적으로 상대로 소급해 보기도 하지만 이미 그 서사적 신비성을 상실하고 세속화되고 있음은 설화 변화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속신화와 성씨신화 등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신화의 서사체계가 배경의 변화와 더불어 야기되는 변모현상이라 보아진다.

2. 詩話·野談類와 小說

소설 발달의 한 과정으로 고려시대에 접어들면 각종 詩話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시의 창작과 주로 관련되는 <시화>류들의 발달을 살펴볼 수가 있다. 소설사를 처음 저술한 金台俊은 이를 稗官文學이란 용어를 써 구분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패관소설·패관잡기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로 李奎報(1168~1241)의 白雲小說·李仁老(1152~1220)의 破閑集·崔滋(1188~1260)의 補閑集·李齊賢(1287~1367)의 櫟翁稗說 등에 수록된 작품들이 중심이 된다. 패관소설류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시화·잡록'에 해당하며, 다만 설화문학과 소설문학을 이어주는 한 과도기의 특수한 문학형태로 봄이 온당하리라 생각된다. 漢書藝文誌에서 <小說家者流 蓋出於稗官 街談巷語 道聽塗說之所造也>라 한 것처럼, 민간에서 전승되는 이야기 또는 그 이야기에 흥미를 덧붙태어 꾸민 이야기인데, 이것이 상술한 전적에서 보면 주로 시화창작과 관련되어 기록되고 있으므로 지식층에 의해 습유 채록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張鴻在의 통계에 의하면 백운소설 31화 파한집 83화 보한집 147화, 역용패설 113화로 되어 있으니 근 400에 이르며, 이로 미루어 볼 때 당대 시화의 성행과 전승을 추단할 수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단편적 일화들이 중심을 이룬다. 파한집에서 그 예를 살펴 보아도 지리산靑鶴洞설화, 崔致遠설화, 妓生과 군수설화, 金生필법설화, 원효대사설화 등 흥미로운 작품이 많다. 보한집에도 대각국사충명설화, 기생백련설화, 女鬼와의 동침설화 등 흥미로운 文話들이 많다. 보한집의 발문 가운데 한 대문을 보자.

일시적으로 다듬고 전각한 글들을 모아 웃음거리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몇줄의 음란하고 괴이한 일을 기록한 것은 학문 연마에 괴로움을 당하는 신진들로 하여금 즐거운 기분을 가지며 쉬게 하고자 한다.

여기서 보면 민간설화 내지 文話들의 채록 의도를 알 수가 있으며, 특히 李寅甫의 '鬼女の 사랑'은 매월당의 만복사저포기를 방불케 하는 전승담이다. 역용패설도 그의 서문 가운데서 '잡되어 실함이 없고 피(稗)와 같은 글이기에 稗說이라 했다'는 말처럼 안평공주설화, 허문경 기행설화, 정통·소매향의 애정담, 최해의 주벽담, 김여맹설화, 홍순설화 등은 패설이 이미 당대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설화를 흔히 신화·전설·민담으로 삼분한다. 앞 항목에서 보인 신화가 그 신성을 거세당하면 전설로 전화한다. 그러나 전설은 증거물을 필요로 하므로 점차 사실에 집착하고 역사화하려는 경직성을 갖게 된다. 반면 창의성을 가진 민담은 시간적 공간적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점차 흥미 위주의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게 되며 전설이나 야담·민간전승 등을 수용하여 새로운 허구의 세계로

확대 개편된다. 시화가 이러한 민담의 세계와 접맥하게 되는 원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설화류가 시화와 함께 공존하던 고려조의 현상은 조선조에 접어들면서 잠차 話·談 자체만으로 독립되어 야담·사화로 독립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3. 殊異傳系 作品들

우리나라 전승설화를 최초로 집대성한 책으로는 殊異傳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 전하지 않고 佚書로 되어 있으므로 다만 후대에 와서 수록한 전적들에 의해 그 逸文들을 확인하는 길밖에는 없다. 삼국유사에서 보면 古本殊異傳을 참고했다고 하고 있으며(圓光西學), 大東韻府群玉에는 崔致遠이 新羅殊異傳을 지었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海東高僧傳에는 수이전의 작자를 朴寅亮이라고 하고, 전술한 삼국유사에서는 “金陟明이 원광법사전을 잘못 보완하여 그 폐단이 해동고승전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미 신라시대에도 최치원의 수이전이 존재했다는 말이 된다. 최치원이 설화들을 모아 최초로 편집을 하였다고 보면 이가 곧 <신라수이전> 또는 <고본수이전>이 되며, 고려조에 와 박인량이 이를 어떤 형태로든지 개편·보완하였으며, 김척명도 개작에 부분적으로나마 참여하였다는 것이 된다.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을 보면 연대가 가장 앞서는 것이 ‘脫解’와 ‘延鳥郎細鳥女’ 두 편이다. 이들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축약되어 있으며 신화적 전승작품이다. 승전으로는 ‘阿道傳’과 ‘圓光法師傳’이 있는데 해동고승전에 수록되었다. 아도는 위나라 掘摩와 고구려 高道寧(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위나라에 유학을 하고 신라로 돌아와 불법을 펴고 成國公主의 병을 고쳐 사찰을 건립한다. 원광은 속성이 薛氏로 三岐山에 살면서 늙은 여우귀신의 도움으로 중국에 유학할 수 있었으며 명승이 되었으니 모두 고승이 되는 과정의 특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心火纏塔’·‘首插石柵’·‘崔致遠’은 남녀간의 사랑에 관계되는 이야기로, 가장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앞의 두 작품은 대동운부군옥, 뒤의 작품은 太平通載에 수재되어 있으며, 운부군옥에는 ‘仙女紅袋’라 하여 이를 축약해 놓았다. ‘심화요담’은 선덕여왕을 사모한 志鬼의 이야기인데, 뜻을 못이룬 지귀의 영혼이 불귀신이 되었다는 애절한 사랑을 말하고 있다. ‘수삼석남’은 崔仇이 사랑하는 여인과의 사랑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죽은 영혼으로 그 뜻을 다시 이루게 되고 되살아나 해로하게 된다는 사랑의 강조를 주지로 한 작품이다. ‘최치원’은 수이전 가운데 가장 장편이며 작품의 구성면에 있어서도 조선조의 전기소설에 비해 손색이 없는 전기담이다. 최치원이 만난 무덤속의 두 여인(八娘·九娘) 그리고 시비 翠襟을 사이에 둔 사랑의 전면함을 다룬 이 작품은 문체면에서도 후대 전기소설이 갖는 산문과 운문의 교직의 특색을 볼 수 있어, 삼국유사의 ‘調信傳’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이 시대까지 전기소설의 연원을 앞당길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花王’은 선덕여왕의 지혜담, ‘虎願’(태평통제)은 향가 ‘도천수관음가’에서의 이적처럼 보개의 기도로 아들 長春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적담이며, ‘老翁化狗’와 ‘竹筒美女’(대동운부군옥)는 김유신과 관련된 설화로 양자 공히 변신담임이 특색이다. 이상 수이

전에 수록된 것으로 알려진 13화는 신화·승담·애정담·변신담 등에서 보면 작품의 소재면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간략화되어 있지만 나말여초에 전승되어 오던 설화의 성격을 살펴보면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4. 擬人傳記體 作品들

고려조 말엽에 이르면 소설 발달과정에서 의인전기체 또는 假傳體라는 특이한 장르의 발달을 보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무신정권이 장기화되면서 문신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현실을 외면하고 산림에 은둔하여 현실에 대한 소극적 불만을 토로하기에 이르는데, 대체로 이러한 문사들이 현실에 대한 우의적 풍자의 방법으로 사물들의 의인화를 통하여 자신들의 지적 능력을 중국고사들에 비의하여 읊어내는 의인전기체의 표현형식을 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작품은 지금 東文選(100-101)에 수록되어 전하는데, 林椿(1170경)의 麴醇傳·孔方傳·李奎報(1345~1405)의 麴先生傳·清江使者玄夫傳, 李穀(1298~1351)의 竹夫人傳, 李詹(1345~1405)의 楮生傳, 中 息影庵(1299~?)의 丁侍者傳 등을 들 수가 있으며, 그밖에 李允甫(1200경)의 無腸公子傳, 中 慧謏(1178~1234)의 竹尊者傳과 米道者傳을 들 수가 있다.

국순전은 가전작품의 효시가 된다. 이 시기는 정중부의 난을 중심한 무신집권기로 가전체가 새로운 신흥세력의 문학창조의 의지를 담고 나타난다. 주인공 麴醇은 위·진시대의 처사였으나 진나라 후주때 등용되어 세상을 어지럽히고는 은퇴하여 폭사한다. 그러나 국선생전에서 보면 주인공 麴聖은 임금의 총애를 받아 벼슬이 높아지나,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방자해져 모영의 상소로 죽게 되며, 국성도 서민이 되나 뒤에 다시 기용되어 공을 세우고 은퇴하여 천수를 누린다. 술을 의인화한 이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전자 국순이 뉘우칠 줄 모르는 난신적자형 부정적 인물로 형상화되어 당대의 군신관계를 풍자하고 있는데 반하여, 후자 국성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헌신하는 긍정적 인물로 설정되어 있어, 임춘 - 이규보가 처했던 대조적 위상을 작품 속에서 잘 반영해 보여주고 있다. 공방전은 청강사자현부전과 대조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공방은 네모난 구멍이 뚫린 엽전을 의인화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단이 큼을 들어 후환을 없애려면 돈을 없애는 방법이 제일이라고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부전은 거북을 의인화하여 속유배와는 달리 부름에도 의연할 줄 알며 잘못 판단하여 세상에 나갔다가 화를 입게 됨이 마치 거북이 잘못하여 세상에 나간 바된데 비의하여 처신의 신중성을 지켜야함을 설득하고 있다. 죽부인전은 대나무를 의인화하였는데 송대부와 결혼하여 남편이 죽자 끝까지 유혹을 물리치고 절개를 지켜 순절하는 사실을 통하여, 가정이 그러하듯 정치적으로도 절개가 필요함을 은근히 우의하고 있는데, 이는 후대에 핵심의 '죽존자전'·정수강의 '포절군전'·'이덕무의 '관자허전' 등의 창작에 영향을 준다. 저생전은 종이를 의인화한 작품으로 주인공 저생을 문인에 비의하여 역대 문인들의 공과를 통하여 당대 정치의 상황을 우의하고 있다. 작자 이침이 충간하다가 유배된 생애와 결부해 볼 때 자전적 성격이 짙은 작품이다. 정시자전은

지팡이를 의인화한 작품으로 작자가 승려인 것을 감안해 보면 고려후기의 불교적 혼탁 가운데 바른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정시자라는 지팡이를 지시해 암유해 보여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이밖에 얼음을 의인화한 빙도자전, 계를 의인화한 무장공자전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조선조 후기의 의인전기류의 발달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만 고려조 말엽에 임춘·이규보·이곡·이침 등 문인들이 당대 사회를 우의하고 풍자한 의인전기의 특이한 표현기법을 개발하여 선도적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을 소설사적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으며, 이가 조선조로 이행되면서 의인소설 발달에 기여한 성과를 기리지 않을 수 없다. 정시자전의 작가 息影庵이 고려 충선왕의 피를 받은 德興君이며, 中慧 이 崔寔임은 작자연구의 근래 성과임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필자, 고소설의 작가문제, 한국고전소설론).

II. 본격적 소설시대의 도래(조선전기)

1. 金鰲新話와 企齋記異

조선조에 접어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전기소설의 개화를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 작품으로 梅月堂 金時習(1435~1493)의 金鰲新話를 들 수 있다. 그의 시 <題金鰲新話>를 읽어보면 ‘풍류롭고 기이한 이야기를 곰곰이 찾아본다’고 하였는데, 그 ‘風流奇話’가 오늘날은 다섯편만의 단편집 金鰲新話로 남아 있다. 이 가운데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 두편인데 萬福寺樗蒲記와 李生窺牆傳이다. 전자는 양생이 왜구의 난으로 죽은 여인의 환신과 만나 개령동(무덤)의 신방이 꾸며지며 그후 다시 보련사 장막에서 못다 이룬 사랑을 불태운다. 그러나 여인이 먼저 유명한 세계가 다름을 말하고 홀로 저승길로 떠나고 양생은 그 여인을 사모하면서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면서 일생을 마쳤다고 하였다. 후자의 이생은 현실에서 최낭자와 사랑에 빠지지만 다시 이별하게 되고, 홍건적의 난으로 죽은 최여인의 영혼과 다시 만나 사랑을 잇는다. 그러나 역시 최낭자는 자신이 죽은 환신임을 말하고 저승으로 떠나고 이생도 그녀를 그리워하면서 저승길을 따랐다고 하였다. 두 작품은 屍愛小說 또는 冥魂小說로서 창작 기법면에서도 방사하였다. 다만 전자가 처음부터 영혼과 함께 거듭되는 사랑을 나누는데 반해, 후자는 현실에서 만나고 다시 영혼과의 거듭된 만남으로 종결된다는 점이 다르다. 죽음을 넘은 사랑의 모티프는 애정의 강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醉遊浮碧亭記는 홍생과 죽은 여인과의 만남을 다룬 작품으로 앞 두작품과 유사하지만, 신선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옛 기자왕의 딸과 홍생과의 만남은 작자가 살았던 시대의 세조와 단종(여인)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역사적 의미망을 덧씌우고 있다. 여인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고 홍생의 상천도 꿈을 통해 확인된다. 南炎浮洲志는 朴生의 지옥체험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박생은 염라왕을 만나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염왕의 선위문을 받아 염왕의 대를 계승한다. 매월당의 행적을 통해 소위 ‘心儒迹佛’의 사상적 근원을 확인시켜주는 한편의 이론이다. 끝으로 龍宮

赴宴錄은 韓生의 용궁체험을 다룬 작품인데 이 역시 작자가 어릴적 궁궐에 놀던 환상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보아진다. 金安老가 실과한 것처럼 〈其書大抵述異寓意〉에서 보면 금오신화는 구성의 내면적 寓意를 감추고 있는 작품으로 보인다. 이 작품을 문체면에서 수이전의 ‘崔致遠’과 비교해보면 중국의 變文의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한데, 이러한 문장은 企齋記異나 雲英傳과도 유사하다.

기재기이는 申光漢이 1553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창작집으로, 전기 금오신화가 동경잡기의 기록대로 용장사의 금오산실에서 지어졌고 매월당의 나이가 당시 34세(1464)경으로 본다면 두 작품의 거리는 90년도 채 못된다. 신광한이 신숙주의 손자이고 김시습과 신숙주는 이념은 달랐지만 세교하던 집안임을 매월당집에서 읽을 수 있으니 신광한이 이미 금오신화를 읽고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기재기이는 마치 금오신화처럼 安憑夢遊錄·書齋夜會錄·崔生遇眞記·何生奇遇傳의 네 작품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최생우진기는 용궁부연록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최생이 용궁에 들어가 시회에 참석하고 선약을 선물로 받아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하생기우전은 만복사저포기의 영향으로 하생이 죽은 여인의 영혼을 만나 인연을 맺고 환생한 그녀와 사랑을 잇는다는 전기적 시애소설이다. 이는 전기소설인 금오신화의 영향을 받은 작품을 후대의 가장 가까운 시간적 거리에서 찾을 수 있다는 대표적 예가 된다. 뿐만 아니라 안빙몽유록은 꽃을 의인화한 몽유록작품으로 원생몽유록·대관재몽유록으로 이어지는 몽유록계의 효시적 작품이며, 서재야회록은 비현실적 액자공간에서 의인화된 문방사우와와 주인(선비)과의 대화를 통해 작자의 생애를 우의화하는 특이한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2. 國文創製와 번역소설의 유행

세종조에 이르러 우리의 문자인 한글이 창제 반포(세종 28년)된 사실은 소설사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사실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세조대에는 간경도감이 설치되어 각종 불가사·유가사·문학사들의 언해사업이 시작되어 과거의 대부분의 문화유산들이 번역되어지는 문화의 일대 혁명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는 가운데 중국에서 역대 여류들의 전기를 소설적으로 기록한 列女傳 등이 수입되어 번역된 사실은 후대의 소설 발달에 큰 자극제가 되었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는 이미 한글 창제 40년 전인 태종 4년(1404)에 열녀전이 수입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中國書入本朝者太宗四年有烈女傳), 유향의 列女傳(7권) 번역은 특히 부녀독자층의 소설기호적 단서가 되기에 족하였다. 한편 불교적 선불사상을 담은 불경언해는 민중내지 부녀계층의 신뢰감을 두텁게 하여 불경속에 삼입된 단편적 작품들의 번역을 통하여 독자층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신불을 목적으로 한 종교적 수단으로도 널리 읽히게 된다. 번역소설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安樂國太子傳·目連傳·善友太子傳·王郎返魂傳 등을 들 수가 있다. 안락국대자전은 안락국이 대왕과 상봉하고 모부인과 함께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현실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선심과 자비로 무상도를 구하면 생사고해를 넘어 극락정토인 안락국에 이르게 된다는 불교적 인생역정을 그리고 있다. 석보상절의 일부로 찬역된 작품이니, 17세기에 이루어진

국문소설 홍길동전보다는 150여년간의 거리가 있게 되는 셈이다. 또 寶珠의 영험을 통해 부모의 눈을 뜨게 하고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선우태자전이나, 암소에게 먹힌 바되어 금송아지로 태어나고 고려국공주와 인연을 맺어 금륜국왕이 되어 눈먼 보만부인을 구출하여 극락에 왕생한다는 금우태자전 역시 불경에서 번역된 작품으로, 당대에 이루어진 국문소설들이다. 이들은 당초 불경류로, 이것이 국문 창제에 힘입어 신불을 목적으로 국문으로 번역되어 민중 속으로 전승되었다가 일정한 변용기간을 거치면서 안락국태자전 → 안락국전, 선우태자전 → 적성의전, 금우태자전 → 금송아지전에 이르는 후대적 이본으로 고착되기에 이른다.

명종조의 중 普雨(1515~1565)가 한문으로 짓고 동시에 국문으로 읊었다고 보이는 왕량반혼전은 애초에는 勸要錄에 수록되어 문학적 동기에 앞서 포교의 방편으로 염불행을 고취한 불경소설임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불도를 배척하던 왕량이 앞서 죽은 부인 송씨의 정성에 힘입어 염라대왕에게 잡혀갔으나 다시 환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월지국공주를 새 아내로까지 맞이하게 된다는 신불목적의 불전소설로, 이 작품 역시 홍길동전보다는 훨씬 앞서는 국문소설이 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불전이 바탕이며 축약된 작품임을 감안할 때, 과연 온전한 소설적 구성을 지닌 작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겠느냐의 회의에 봉착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계속 작품이 한문이나 국문이나하는 표기상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나 이 양자는 어느 작이 먼저이고 나중이나에 따라 작품의 창작연대가 직접 관련되지므로 항상 이 표기의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는 먼저 국문으로 창작된 소설의 가치성이 높아짐은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3. 中國小說의 유입과 영향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거대한 중국과 일본에 둘러 싸여 있어 개화기까지는 주로 대륙을 통하여 선진 중국문화의 영향을 직접 받아 왔다. 소설만 하더라도 고대 한림제유의 작인 翰林別曲 가운데 <太平廣記四百餘卷>의 기사가 보이고 용비어천가에도 剪燈餘話가 인용되어 있다. 연산군은 직접 중국 소설의 구입을 명령했을뿐 아니라, 삼국지 연의를 선조대왕이 직접 읽었다는 기록도 있다. 금오신화에 직접 영향을 준 瞿佑의 剪燈新話는 1421년(영락 19) 항주에서 그의 후서를 붙여 조카가 간행한 기록이 지금 남아 있다. 처음 간행할 때는 剪燈錄이라 하였던 것 같다. 우리 나라에서 전등신화의 기록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김시습(1435~1493)의 '題剪燈新話後'라는 칠언고시에서다. 그렇다면 전등신화의 유입은 간행 후 50여년만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후 연산군이 전등신화를 탐독하여 중국가는 사신에게 사올 것을 명하고 있다(연산군일기 권 30 '剪燈新話·剪燈餘話·效嘯集·嬌紅記·西廂記等 謝恩賀來'). 그리고 같은 해(1506) 전등신화·전등여화를 간행 진상한 기록도 있다. 剪燈新話句解(林菴발문)가 간행되어 남아 있으니 그 인기도를 짐작할 수 있다. 전등여화도 1420년에 저작되었고 용비어천가의 완성이 1445년이니 25년간의 사이에 이미 중국에서 유입되어 집현전 학자간에 읽혔다는 말이 된다. 羅貫中의 三國志演義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읽혀진 인기는 전등신화에 비할 바가 아니다. 중국

孫楷第의 〈中國通俗小說書目〉에는 현존하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1522년(明嘉靖壬午本)에 간행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선조실록(권3)에는 奇大升이 선조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지 오래지 않다’라는 대문과 ‘임금께서 읽으셨다니 심히 미안하다’라는 귀절이 보인다. 이해가 1569년(선조 2년)이니 불과 40년 사이에 삼국지연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많이 읽혔다는 증거가 된다. 전등신화가 이땅에 유입되어 전기소설의 본격적 작품인 금오신화의 창작여건을 성숙시켜 주었음은 물론이고, 금오신화는 다시 전등신화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淺井了意의 오도기보고(伽婢子)나 그 후대의 우게쓰모노가다리(兩月物語)를 생산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다시 같은 문화권인 월남에서는 傳記漫錄같은 작품을 생산하는 영향으로 작용하기에 이른다. 삼국지연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군담 소설에 영향을 미친 이외에 작품 자체가 분화·번안되어 關雲長實記·趙子龍實記·張飛馬超實記·諸葛亮傳·黃夫人傳·姜維實記·赤壁大戰·華容道實記 등의 작품을 생산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그 후 이른바 사대기서에 속하는 西遊記나 水滸志같은 작품도 임란을 전후하여 수입되어 소설지평을 확대하는 데 크게 작용한다. 서유기의 번안으로는 孫悟空·唐太宗傳 등이 분화되어 나오며, 수호지는 홍길동전의 창작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중국의 三言·二拍에서 40편을 골라 엮었다고 하는 抱甕老人의 今古觀劇도 그 후 언제 한국에 전래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것이 번역되어 많은 독자를 가졌고, 또 그 번안으로 朴文秀傳·李太白實記·錢秀才傳·彩鳳感別曲·青樓義女傳 등 많은 작품이 파생되기에 이른다.

4. 雜記·野談類의 성행

중종실록(1511)에는 蔡壽(1449~1515)의 薛公贊傳에 관한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채수가 설공찬전을 지었는데 그 내용은 輪廻禍福之說로 조야가 모두 현혹되어 이를 한자(문자)로 베끼거나 한글로 번역하여 읽었다고 하였다. 지금 전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비록 오늘날의 갖추어진 형태의 작품은 아니지만 불교적 전기소설이었음은 추단할 수 있다. 설공찬전이 문제가 되어 채수를 치죄하려 하자 영의정 김수동은 그를 옹호하여 채수가 죽어야 한다면 태평광기·전등신화를 지은 자도 주살되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김수동은 당대 사림에 맞서 소설을 옹호한 관료의 대표적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5세기 말엽부터는 자기 주변의 잡기·전문들을 기록하거나 창작하여 남기는 풍조가 성행하여 蜚聞잡기·골계전(서거정)·용재총화(성현)·청과극담(이륙)·패관잡기(어숙권)·용천담잡기(김안로) 등의 저술이 많이 나왔다. 그 가운데서 成俔(1439~1504)의 慵齋叢話는 이시대 잡기류의 대표작이다. 그중 ‘강감찬과 호랑이’·‘귀신을 물리친 안공’ 등의 이야기는 설화가 역사적 인물과 결합된 사실적 접근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辛旽이야기’나 ‘崔瑩무덤이야기’는 민간전승을 채록한 대표적인 것이다. 특히 양적으로 호색설화가 많은데 사대부에서 천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파고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음식과 남녀관계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욕망’이라는 일상적 의식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호색해학담은 서거정의 太平閑話滑稽傳 가운데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후대의 野談集이 이를 많이 포섭하게 된다. ‘안생의 사랑’같은 작품은 상전인 안생과 정승의 종과의 사랑의 행적이 곡진하여 죽은 여인의 영혼을 만나 그녀를 그리워하는 모습은 마치 이생규장전의 양생의 사랑을 방불하게 한다. 이러한 작품은 잡록(패설)과 소설과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 성현의 형인 成任(1421~1484)은 이미 고려시대에 유입된 太平廣記(500 권)을 축약하여 太平廣記詳節 50권을 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문이설들을 가려 모아 太平通載를 편찬하였다. 수이전 일문인 ‘보개’·‘최치원’이 여기 수록되어 있음은 이미 앞에서 보인 바와 같다. 또 태평광기상절이 바탕이 되어 太平廣記諺解가 간행되었는데 이는 소설발달에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徐居正(1420~1488)의 태평한화골계전은 그 제목이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시정에 떠돌아다니는 부패관료담, 갖가지 군상들의 호색담, 재담, 해학담을 모은 일화집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대하여, 柳夢寅(1559~1623)의 於于野談은 그후 약 백여년 뒤, 즉 임란을 전후한 시대의 특이한 인물들의 일화·기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임란과 관계되는 기사가 가장 많다. ‘紅桃傳’이 후대의 ‘崔陟傳’(일명 奇遇錄)으로 변모된 모습은 설화의 소설화과정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5. 林梯와 權韓畢의 소설들

白湖 林梯(1549~1587)는 김시습 이후 작가로서의 사명을 의식하고 작품활동을 한 대표적 인물로 손꼽을 수 있다. 白湖集에 의하면 그가 남긴 시만도 천 여수나 된다. 그가 현실이나 사물을 보는 눈이 특이했던 것처럼 소설에서도 기법상 특이한 愁城誌·花史·元生夢遊錄을 남기고 있다. 수성지는 심성을 의인화하여 지은 天君小說의 대표작이다. 마음의 의인화인 주인공 천군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통제하는 나라에 갑자기 근심이 생겨 愁城을 구축하게 되며, 공방(돈)으로 국장군(술)을 초치하여 그 수성을 함락하고 환락을 얻는다. 이 작품은 사람의 마음 속에 생긴 근심을 술로써 해소한다는 사실을 의인화하여 구성한 특색이 살아있다. 형식으로 보면 고려조의 가전체가 발전한 것이라 하겠는데, 사기의 서술방식을 원용하여 의인화된 왕조의 흥망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였다. 수성지는 근심(愁)으로 형상화된 왕이 사회의 혼탁을 씻고 모두가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상사회를 회구하는 현실 풍자의 뜻을 담고 있는데, 국양장군이 수성을 공략하여 평정하는 전투적 가전기법으로 상징화하였다.

花史는 작자를 南聖重 또는 盧兢이 지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임제의 작이다. 식물을 의인화하는 기법은 설총의 花王戒까지 소급될 수 있다. 꽃을 의인화하여 매화·모란·부용을 왕으로 삼고 화초와 초목을 신하와 백성으로 삼아 각각 식물계의 성쇠를 묘사하고 있다. 陶는 매화, 夏는 모란, 唐은 부용의 왕국이다. 꽃과 인간을 대비한 십 여개처의 논평에 의하면 성품이 온전하고 바른 자일수록 언어 문장에 오르기를 힘쓰거나 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紅白黨斷案>에서 보면 작자가 당시에 당론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작품이 의미하는 바도 당대 현실사회에 대한

부정, 이상사회에 대한 동경이 얼마나 간절하였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元生夢遊錄도 작자가 元昊·金時習說이 제기되어 있으나 임제의 작업은 황패강이 이미 고증한 바와 같다(한국서사문학연구). 주인공 元子虛는 강개한 선비로 꿈 속에서 사모하던 단종과 사육신에 비의된 인물 그리고 복건자 남효운을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비분강개하다가 꿈을 깬다는 줄거리이다. 세조의 왕위찬탈이라는 역사적 불의를 꿈이라는 액자를 통하여 규탄한 내용으로 당시의 시대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임제는 수성지를 통하여 천군소설의 기법을 개발하고 화사를 통하여 의인소설의 꽃을 피웠으며 원생 몽유록을 통하여 몽유의 틀 속에 시대의식을 수용하는 본격적 소설작가로 부각되고 있다. 鼠獄說을 ‘취의 재판’이라 하여 임제의 풍자소설로 북한문학사에서 부각시키고 있으나, 그의 작품이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權韓(1569~1612)도 임제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대표적 작가의 한 사람이다. 그의 유명한 〈宮柳詩〉는 자신이 시화를 입어 죽게 되는 직접적 동기가 되지만, 현실풍자의 대표적 작가로서의 기질을 잘 보여준다. 周生傳은 권필 자신의 창작이 아니며 임란시 이어송 휘하 장군의 서기로 따라나온 작품의 주인공이자 실존 인물인 주생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란 假托法을 쓰고 있다. 이러한 가탁의 기법은 趙韓의 崔陟傳에서도 볼 수 있다. 불우한 주인공 주생이 배도와 선화의 사이에서 벗어내는 사랑의 갈등관계를 다룬 이 작품은 문장 가운데 당대의 전기 會眞記·霍小玉傳 등에 나오는 글귀가 내비치는 것으로 보아 당대 전기의 영향을 받은 염정소설이다. 章敬天傳은 염정소설임은 확인하였으나 오늘날 전하지 않으며, 石洲集에는 酒肆丈人傳·郭索傳 두편의 의인소설이 남아 있어 작가로서의 그의 명성을 전해주고 있다.

III. 전후의 사회변동과 소설의 변모(조선후기)

1. 壬丙兩亂과 영웅소설의 성행

일본의 침략전쟁인 임진왜란(1592)과 청나라의 침략전쟁인 병자호란(1636)은 40여년간의 간격을 두고 이 땅을 거듭 휩쓸어 초토화시켰으며 정치·경제적 피해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조선 전기와는 다른 커다란 변혁을 가져 왔다. 유성룡의 징비록·남봉의 분충우난록·김양기의 창의록 등 임진난의 각종 실기류, 병자호남창의록·서정록·강도일기·남정일기 등 병란의 창의록 일기류들이 쏟아져 나타나면서 참혹한 전쟁을 오랜동안 체험했거나 들은 피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영웅을 갈망하는 시대정신이 작품을 통해 차츰 나타나게 된다. 영웅소설 가운데 역사군담류로는 대표적 작품으로 壬辰錄·朴氏傳·林慶業傳을 들 수 있으며, 창작군담으로는 劉忠烈傳·趙雄傳·蘇大成傳·張風雲傳·張國鎮傳·權益重傳 등 근 50여 작품을 들 수 있다.

壬辰錄은 일정한 줄거리를 가진 작품이 아니다. 필자가 20여 이본들을 가지고 대교해본 결과 다양한

이본들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사명당이나 이여송·관운장설화를 통해 대외적인 적개의를 살피볼 수 있는 한편 이순신·곽재우·김덕령·논개·계월향 등 구국의 영웅들을 통하여 국내의식의 결속과 자성을 촉구하는 의미가 크게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 주인공들의 활동상을 동시에 나열하는 읍니버스형 구조에서 그 특색을 찾을 수 있다. 박씨전과 임경업전은 자매편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전자에서는 여성영웅의 전형을 후자에서는 민중적 영웅의 표본을 들 수 있으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창작되어졌으므로 상기 작품들을 역사소설로 구분한다. 유충렬전·조웅전·소대성전 같은 작품은 허구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군담류들이다. 劉忠烈傳은 창작군담의 전형적 작품으로, 유충렬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고난을 받으나 도술을 닦아 간신배를 다시 물리치고 세를 회복하여 부귀공명을 누린다는 고난과 행운의 반복 구조를 지니고 있다. 趙雄傳의 조웅도 간신 이두병과의 대결과 장소저와의 결연 등을 이어보면, 전반에서는 고행과 결연담이 후반부에서는 영웅적 무용담이 우세하게 조직되어 있다. 蘇大成傳에서도 대성의 고난과정이 영웅성과 일치하여 사건을 전개하다가 용왕의 아들이 적강하였다고 하여 그를 영웅화하는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덕무(1741~1793)의 은애전에는 종로의 담배가게에서 군담소설을 읽는데 영웅이 실의하는 대목에 이르자 이를 듣던 사람 중 하나가 낭독자를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의 단면을 기록하고 있으며, 趙秀三(1762~1849)이 그의 추재집에서 소설의 직업적 낭독자인 傳奇叟를 소개하고 읊은 시에는 ‘아녀자는 상심해 눈물뿌리고 영웅의 승패는 칼로 가리기 어렵다’고 읊고 있다. 이러한 전기를 바탕으로 보면 영웅소설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된다. 조동일은 영웅소설의 시대적 성격을 말한 글(한국소설의 이론) 가운데서 몇개의 자료적 근거를 바탕으로 영웅소설의 편년을 추정하고 있다. 제1기는 17세기 중반으로 소급해 잡아 금방울전·소대성전·구운몽·숙향전 등을, 제2기는 17세기말이나 18세기 초반으로 잡아 조웅전·유충렬전·현수문전·이대봉전 등을, 제3기는 18세기 중엽 이후로 잡아 장풍운전·장경전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18세기 말엽 대마도 역관이었던 小田幾五郎의 象胥記聞(1794)에는 장풍운전·소대성전·임장군충렬전·숙향전·최충전 등 대부분 군담류소설들이 조선사회에서 읽히고 있었다고 한 기록이 있으니, 영웅소설의 인기도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2. 洪吉童傳과 그 亞流作品들

蛟山 許筠(1569~1618)의 洪吉童傳은 소설시대로 접어든 후 본격적으로 창작된 최초의 국문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는 150년전의 김시습을 뒤잇는 시대적 반항아라 하겠으며, 그의 생애를 통해 살펴보면 현실에 대한 불만을 담금질하여 작가정신을 키워왔다고도 볼 수 있다. 澤堂雜著(이식)나 松泉筆譚(심재)에는 〈許筠作洪吉童傳以擬水滸〉라고 하여 작자를 분명히 했으며, 홍길동전은 수호지에 비길만한 작품임을 설파하고 있다. 이 작품은 길동의 영웅화과정을 다룬 영웅소설의 전형으로 흔히 평가하는데, 여기서는 길동이 당대의 사회적 부조리를 작품 속에 이입시켜 현실을 고발한 사회소설로서의 평가가 앞서야 되리라고 생각된다. 홍길동전은 그의 활동공간과 시간적 배경에서 보아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가정의 성장과정을 통해서 호부호형을 못하는 서자로서의 설움을 통해 ‘서얼금고’의 사회적 제도를 고발하고 있으며, 활빈당수 해인사 약탈 함경감영 습격 등을 통해서 의적행위를 통하여 사회의 제도적 모순이 빚는 결과(현실)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마지막 울도국왕이 되는 해외진출을 통해서 현실이 지향할 대안사회의 이상을 제시하여 보여준다. 이 작품은 영웅소설이 일반적으로 갖는 ‘地下國大賊除治’의 민담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도 지적된다. 홍길동전은 국내적 소원을 들어, 연산조의 대도 洪吉同이나 명종조의 대도 林巨正, 임란 당시 반기를 들었던 李夢鶴을 지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 작품은 이상과 현실의 갈등의식이 오랜 세월 민중들의 정신생활을 지배하면서 자연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이 광해군 난정시 한 작가의 손을 빌어 허구적 형상화과정을 거쳐 창작된 작품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단 惺所覆瓿藁에는 한문으로 창작된 嚴處士傳·蓀谷山人傳·張山人傳·南宮先生傳·蔣生傳 등 다섯 편의 ‘傳’이 전한다. 엄처사전의 엄충정은 나무하고 물기는 상인, 손곡산인전의 이달도 천비의 소생이며, 장산인전의 장한웅도 양의원, 남궁선생전의 남궁두도 아전의 후예이며, 장생전의 장생도 천한 객이다. 이들 모두가 사회적 제약과 장벽 때문에 탁월한 재능을 가졌으나 현실에 수용될 수 없었던 상황을 주지로 삼아, 자아와 사회의 갈등을 작품 속에서 다루고 있다. 이밖에도 田禹治傳의 전우치도 지방정치의 부패상을 지적하여 신통력을 부려 빈민을 구제하는 구성이 홍길동전과 흡사하며, 徐花潭傳의 서경덕도 실제인물이며 그의 도술행각을 그린 사회소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홍길동전과 전우치전의 내용상 유사성이나 허균이 우치의 도술을 그의 惺叟詩話 가운데서 인정하고 있는 점, 서화담이 허균의 부친 허엽의 스승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양 작품도 허균의 창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3. 九雲夢과 謝氏南征記

西浦 金萬重(1637~1692)은 귀족적 보수적 작가의 인상이 짙다. 김만중의 작품 九雲夢은 주제의 설정이나 표현의 문체면에서 고도의 세련미를 느끼게 하며 가히 소설문학의 절정에 선 느낌을 준다. 김춘택(1670~1717)의 北軒集에 의하면 서포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많은 소설을 지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남아 전하는 것은 두 편뿐이다. 사씨남정기는 五洲衍文(이규경)에도 말했듯이 인현왕후 폐출 사건을 풍자한 것으로 北軒이 이를 한역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구운몽은 그런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종래에는 이를 같은 국문소설로 보았으나 근래 丁奎福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乙巳本의 모본이 된 老尊本을 살펴보면 원본이 한문본임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는 서포만필 가운데서 ‘제나라 말은 제나라 글로 써야 한다’는 국민문학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자가 주표기 수단이던 당시의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었음인가. 그리고 구운몽의 창작연대도 근래 새로 발견된 西浦年譜(일본 천리대)에 의하면 남해 유배시(숙종 15~18)가 아니고 언사의 죄로 처음 유배되었던 선천 유배(숙종 13~14)시의 창작이라는 것이다. 북한잡설에 의하면 <大旨以功名富貴 歸之於一場春夢>이라고 하여 현실부정의 불교적 인생관이 구운몽의 주지로 되어 있다. 성진의 환생인 양소유가 과거에도 급제하고 여덟부인을 거느리고 부귀공

명을 누리나 문득 삶의 허무를 깨닫고 다시 옛 성진의 생활로 되돌아간다는 환몽체험을 통하여, 불도에의 귀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귀영화의 환몽적 삶이 귀양살이로 전전하던 자신의 처지에서 현실적 영화를 그리던 안티테제로 내세운 원망공간일 수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九雲記는 누군가가 구운몽을 후대에 확대 개작한 작품으로 생각되며, 李廷綽(1678~1758)의 玉麟夢은 회장체소설로 주인공 삼대에 걸친 가정소설적 구성이 특색이다. 구운몽의 구성을 확대한 듯한 작품으로 南永魯(1810~1858)의 玉蓮夢이 있으며, 그 이본으로 내용이 거의 유사한 玉樓夢이 있다. 이들은 모두 국문본과 한문본이 공존하고 있어 그 선후를 가리기가 힘들다. 적장소설로 변모된 도교적 색채가 짙은 작품이다. 이들 몽자류 소설은 지금까지 부너자나 서민계층에 머물렀던 독자의 세계를 확대하여 귀족계층 상류계층도 소설의 독자가 될 수 있다는 밑거름 마련하게 되어, 작자와 독자를 잇는 소설의 의식지평을 점차 확대하여 주고 있다.

4. 假傳體와 夢遊錄의 발달

가전체는 고려말의 제 작품에서 본 것처럼,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성격에 따라 관련된 고사를 동원하고 거기에 허구적 설명을 첨가하여 인생의 교훈을 끌어내려고 하는 구성법이므로 매우 인공적이고 비실용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설 발달의 초기단계인 고려말(12~13 C)에 발달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조선조에 접어들어 새로운 형태로 성장 발달하는 면모를 보인다. 金宇禎(1540~1603)의 天君傳은 천군계 가전의 근원이 되는 작품으로, 임제의 수성지보다 십여년이나 앞선다. 천군의 나라가 간신의 발호로 위기를 맞지만 끝내는 천군이 이를 소탕하고 평정을 회복한다. 치국의 방법은 치심의 방법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鄭泰齊(1612~1699)의 天君演義는 天君傳을 그대로 확대한 느낌을 주는데, 다만 작품의 갈등구조가 보다 복잡화되고 있다. 鄭瑠和(1786~1840)의 天君本紀는 일명 '心史'라고도 하는데 화사의 내용을 모방한 듯하며 역시 성리학적 심성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柳致球(1793~1854)의 天君實錄도 같은 천군계소설의 모작이다. 林泳(1649~1696)의 義勝記도 역시 천군을 주인공으로 삼아 충신·간신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천군의 평정이 이루어진다는 작품이다.

마음의 가전 외에 단순한 사물의 가전도 조선조 후기에 이르면서 계속 나타난다. 安鼎福의 女容國傳·李德懋의 管子虛傳·李頤淳의 花王傳·柳本學의 烏圓傳·李鈺의 南靈傳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오면 이미 소설의 표현방법을 신흥 장르들에 많이 빼앗기고 가전은 단지 표현의 묘미만을 찾고 사물과 인간의 도를 추구한다는 정신이 약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한편 15·6세기에 접어들어서는 몽유록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등장하여 여러 작자들에 의해 많은 몽유록 작품이 창작된다. 가전체가 사대부들의 고루한 지식을 추구하는데 반하여 몽유록에서는 사물의 개념이 더욱 확대되고 모든 대상을 사물 자체보다 대상을 마음에 투영시켜 다루는 방법을 택하게 되므로 훨씬 더 자연스런 형식으로 매력을 얻기에 이른다. 沈義(1475~?)의 大觀齋夢遊錄은 꿈에 최치원이 천자가 되고 역대 문호들이 신하가 되어 있는 왕국에서 놀았던 주인공의 체험을 다룬 작품으로,

작가가 현실의 정치적 타락을 목도하며 불만족스럽게 생활한 것으로 보아 그 대응되는 이상향으로 문장왕국을 꿈꾼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몽유록계 작품의 효시가 되는 것으로 주목된다. 원생 몽유록은 역사적 비판시각이 뚜렷한 작품이며, 안빙몽유록은 개인적 신변사와 깊은 관계를 지녔다. 이 밖에 임란의 비판적 시각을 다룬 작품으로 達川夢遊錄·皮生夢遊錄을 들 수 있으며, 병자호란의 비판적 시각을 다룬 작품으로 江都夢遊錄이 있다.

金華寺夢遊錄·浮碧夢遊錄·天宮夢遊錄 등 무려 20여의 모방작들이 그후 쏟아져 나왔다.

5. 宮廷 背景의 作品들

흔히 궁정문학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것으로 癸丑日記·仁顯王后傳·恨中錄을 들 수가 있다. 전통 봉건사회의 특수 계층인 왕가의 대가족사회에서 빚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된 이 작품들은, 외부공간과 차단된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었으므로 신비감이 있고, 작자의 기술 한계가 있으므로 표현의 방법이 은밀하며, 특수사회의 묘사이므로 표현언어가 독특하다. 계축일기는 일명 西宮錄이라고도 하며 선조의 후비이며 광해군의 이복모인 인목대비가 서궁(덕수궁)에 10년 동안 윤희생활하던 상황을 인목대비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다. 인목대비의 궁녀나 친정쪽 후손이 지었으리라 생각되는 이 작품은 부녀자 사회에서 많이 읽혀진 듯하다. 광해군의 집권 세력과 인목대비 사이의 갈등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특히 대비와 아들 영창대군 친정 아버지인 김제남을 중심한 수난과정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인조반정 이후의 역사적 상황은 癸亥反正錄이라는 새로 발굴된 작품에 이어지고 있는데 긴장감은 전자만 못하다. 인현왕후전은 숙종비 인현왕후 민씨가 장희빈의 음모로 추방되었다가 다시 복위되기까지의 과정을 인현왕후의 전기의 형태로 기술한 작품이다. 숙종과 장희빈·민비 사이의 갈등양상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인현왕후를 성녀로 추켜올린 내용에서 보면 민비쪽이나 박태보에 관련된 어떤 인물이 기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작품은 특히 민비의 감고당 윤희생활과 복위의 과정이 꿈이나 우연적 사건들의 개재를 통하여 의식적 허구화가 되어 있어, 실전이면서도 긴박감마저 느끼게 한다. 김만중의 사씨남정기가 바로 이 작품을 풍자한 목적소설임은 이미 서포소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혜경궁 홍씨(1735~1815)의 한중록은 엄격히 구분하면 수기 혹은 회고체 수필이라 하겠으나, 이 역시 시파(남인)와 벽파(노론)간의 갈등, 흥봉한과 정순왕후 쪽의 갈등, 그리고 능동적 성격의 정처·정순왕후·김구주·홍국영 등과 이에 대응되는 흥봉한·인한·낙임 등의 성격이 작자의 생동하는 문장력으로 잘 대응되고 형상화되어 있어 한편의 소설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본다. 특히 혜경궁의 남편인 사도세자의 죽음을 두고 장황히 서술되고 있는 뉘뜨리에는 ‘한의 문학’으로서의 특색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 작품은 작자 회갑의 해와 67·68·71세의 네 차례에 걸쳐 씌어진 것을 한데 모은 것인데 국문본 한문본 국한혼용본 등 이본이 많으며, 작품의 명칭도 한중록·한중만록·泣血錄 등 다양하다. 계축일기는 선조·광해군, 인현왕후전은 숙종, 한중록은 영조에서 순조대까지의 궁중비사를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는 부분까지 보여주고 있어 궁궐 이면사의 일대 파노라마라 할 수 있다.

한편 궁중을 배경으로 한 특수사회의 염정사건을 다룬 작으로는 雲英傳·英英傳·丁香傳 등을 들 수 있다. 운영전은 壽聖宮夢遊錄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안평대군의 사궁 수성궁을 배경으로 궁녀 운영과 김진사와의 사랑을 다루고 있으며, 마치 중국의 西廂記나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방불케 한다. 운영의 죽음을 통해 사랑의 자유와 승리를 구가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 소설사에서 보기 드문 현실과 천상 그리고 몽중세계 삼계를 잇는 입체적 구성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영영전은 相思洞記 또는 檜山君傳이라고도 하며, 김생과 궁녀 영영과의 연애사건을 다룬 것으로 운영전의 아류작품이라 할 수 있다. 丁香傳은 세종의 친형인 양녕대군과 평양기생 정향과의 사랑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세종과 양녕간의 우정을 희화화하여 보여주는 후대의 모방작이라 하겠다.

6. 說話의 小說化作品

설화란 그 자체의 속성이 유동적이어서 세계적인 분포를 가진 것이 많으며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내왕하고 첨가되고 분화하는 것이 특색이다. 설화가 소설화한 것으로 대표적 인 것으로는 沈淸傳과 興夫傳이 있다. 심청전은 우리 전통유가사회에 널리 전파된 효행설화·人身供儀說話가 중심이 된다. 심청이 공양미 삼백석에 자기 몸을 팔아 인당수의 제물이 되지만 그녀는 자기 희생의 보상으로 용궁에 들어가고 연꽃으로 새로 태어나 왕비가 되고 마침내는 아버지의 눈도 뜨게 한다. 심청이 부친의 개안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은 삼국유사의 居陀知설화와도 방사하며 효행모티프는 〈貧女養母〉나 삼국사기의 〈孝女知恩〉과도 비슷하다. 한편 심청전의 근원설화는 전남 곡성의 聖德山 觀音寺緣起傳說의 '元良과 洪莊' 설화가 원형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어쨌든 심청전은 전승설화의 소설화로 '孝'를 표방하는 유가사회에서 도덕적 교훈성 때문에 많은 독자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판소리 심청가에서 보는 것처럼, 가령 심봉사와 뽕덕어미의 골계적 장면은 비장한 도덕률을 파괴하고 현실적으로 희극화하는 변화의 일면도 보여준다. 흥부전은 착한 흥부와 악한 놀부 형제의 우애가 주제가 되어 있다. 흥부 놀부의 성격 뿐 아니라 흥부 아내나 놀부 아내의 성격도 작품 속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선과 악의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는 보은박, 그 속에서 등장하는 물건이나 인물군상으로 미루어 보아 서민사회의 의식이 질게 밀바탕에 깔린 작품이다. 근래에 와서 사회학적 해석을 통해 흥부와 놀부를 신분상으로 몰락양반 또는 신흥부농 등으로 보아 계층간의 갈등을 주제로 삼으려는 해석의 방법도 이 작품의 변모된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다. 이 설화의 근원은 신라의 旁龜설화에서 찾을 수 있다. 몽고의 '박타는 처녀'나 중국의 '弘農說話' 일본의 '舌切雀'·'花咲爺'도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동화나 전승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의인소설류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는데, 토끼전·장끼전·두껍전·쥐전 등이 그것이다. 토끼전의 근원은 이미 삼국사기 김유신 설화에 있는 '龜兔之說'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인도의 '本生經(자타카)' 일본의 '水母猿'에서도 찾을 수 있다. 토끼가 자라에 속고 다시 자라가 토끼에 속고, 양자를 사이에 둔 용왕의 횡포는 모순된 봉건사회의 반영으로 보아지며, 의인화된 동물들의 성격이 흥미롭게 우의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본으로는 별주부전·토생전·불로초·토별가

등 다양하다. 장끼전은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다가 낭패를 본 장끼, 그리고 까투리의 개가를 통하여 당시 개가를 엄격히 금하고 있던 봉건사회의 제도적 모순을 의인화의 기법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 이 본으로는 雄雉歌·雌雉歌·장끼타령 등이 있다. 두껍전은 蟾同知傳이라고도 하며 爭年설화를 소설화하고 있다. 이 작품 속의 나이자랑이나 상좌다툼은 인간사회의 속성이며 여우의 패배와 두꺼비의 자리굳힘은 인간사회의 풍자적 표현이다. 쟁년설화는 고려대장경의 ‘十誦律’에 그 연원이 보이며, 박지원의 閔翁傳에도 원용되고 있다. 이본에는 蟾處士傳·獐先生傳·鹿處士宴會 등이 있다. 쥐전은 鼠同知傳이라고도 하는데 주인공 다람쥐와 서대주는 성격이 대조적이다. 쥐와 인간을 사이에 두고 빚어지는 식량문제 소송사건을 둘러싼 뇌물의 거래를 통하여 당시 위정자의 인간상을 폭로하고 있다. 한문본에 鼠大州傳·鼠獄記 등이 있으나 이 작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밖에도 황새결승·까치전·蛙蛇獄案·鵲鳥相訟 등이 있으며, 많은 訟事型모티프의 개입으로 복잡한 인간생활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7. 朴趾源의 諷刺小說

燕岩 朴趾源(1737~1805)은 우리 소설문학에 본격적 풍자의 기법을 적용한 대표적 작가이다. 그의 생애의 전반은 매우 낙척불우하여 신분은 비록 양반이었으나 과거에도 뜻을 잃고 곤궁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에게 비치는 부정적 현실을 대하는 동안 풍자의 기법을 익히게 된다. 兩班傳과 더불어 열하일기 關內程史에 수록된 虎叱과 玉匣夜話에 수록된 許生은 그의 대표적 작품들이다. 양반전에서 부자가 양반을 동경하여 많은 돈으로 그 양반을 사게 되지만 실속 없고 횡포한 양반의 속성을 알고는 다시 천부로 되돌아간다. 이 작품은 양반의 부정적 실상을 폭로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부자는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양반이 될 수 없다는 계층적 관계를 고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虎叱은 北郭先生과 東里子의 관계를 통해 주자주의적 위선을 풍자함과 아울러, 북곽선생이 호랑이에게 질책당하는 사실을 통해 위선적 인간상을 폭로한다. 희곡적 구성을 지닌 이 작품을 연암은 중국서 돌아오는 길에 沈有朋의 집 족자의 글을 베낀 것이라고 하여, 假托의 기법을 통해 현실의 저항을 피하면서 이를 골계적 변명으로 삼고 있다.

許生 역시 尹映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며 윤행은 다시 辛齋·李生員 등에게 들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허생의 장사를 통한 중상주의의 강조, 時事三難의 주장을 통한 북학의식은 당시의 경제상태나 북벌론에 대한 풍자적 표현이며, 무인도에 도둑떼를 데리고 들어가 이룩한 이상향은 홍길동전의 울도국에 비의되는 이상국이다. 그는 양반·북학·허생 등 지식계층의 무능이나 행위를 통해 서민계층에 대한 하향풍자를 일삼는 외에, 馬駟傳·穢德先生傳·閔翁傳·金神仙傳·廣文者傳·虞裳傳 등 신분이 미천하고 성실한 주인공들을 통해 부패된 지배계층을 상향풍자하는 양면작전을 쓰고 있다. 過庭錄(박종채)에는 연암이 “어릴 때부터 세상의 交友가 오로지 권리와 이익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九傳을 譏刺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연암소설의 풍자의 주대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마

장전의 송옥·조담타·장덕홍의 벗사귀는 도는 염통병 환자의 약달이는 비유와 연결되고 있다. 민옹전에서 부자를 황충으로 가난한 자를 신선으로 보는 비유는 두꺼비와 여우의 爭長說話와 이어진다. 예덕선생전의 엄항수는 똥을 퍼나르는 천류이지만 생활의 청렴과 결벽함을 들어 그를 예찬한다. 김선전의 김홍기는 은사로서의 처신을 기리는 인물이다. 광문전의 광문은 살인자나 도둑의 누명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떳떳함을 키워나간다. 우상전의 우상은 역관의 신분으로 정도를 지킨다. 현실적 어려움을 딛고 자신의 양심을 지켜나가는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연암이 기리는 대상들이다. 그밖에 易學大盜傳에서는 높은 식견의 역학자를 도둑으로 몰아 붙이고, 鳳山學者傳에서는 무식한 농부로 효제를 행한 자를 진실된 학자로 부추기고 있다. 烈女咸陽朴氏傳에서 남편이 죽자 순사하는 박씨의 절행을 통해 개가를 금지한 대대 사회의 인권유린을 규탄한다. 연암은 그의 제자들이 지은 책의 서문을 통해 그 나름의 특이한 비유의 기법으로, 글은 있는 실상을 꾸밈없이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주의적 주장도 펴고, 문제반정을 통해 보는 것처럼 제 나름의 독창성과 자주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擬請疏通疏에서 보는 것처럼 현실의 부조리를 직접 고발하는 용감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고소설에서 본격적 풍자의 길은 연암이 열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는 이 길만이 자아와 현실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길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8. 家庭小說의 발달

가정소설은 봉건가족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가족 성원간의 이질감에서 야기되는 가족간의 갈등이 중심이 되는 소설이다. 가정소설은 薔花紅蓮傳·콩쥐팍쥐전·鄭乙善傳·金仁香傳처럼 주로 전설소생과 후설소생간의 갈등을 다룬 繼母型 작품들이 수적으로도 가장 우세하다. 장화홍련전은 계모의 간계로 억울하게 죽은 장화·홍련의 원혼이 부사 정동우에게 나타나 이야기하는 것을 단서로 원수를 갚게 된다는 줄거리인데, 사건의 결말은 公案類와 같이 처리되고 있다. 이 작품은 효종 때 철산부사 전동홍이 직접 겪은 사실을 소설화한 것으로 嘉齋事實錄에 의하면 박인수작이라 하여 작자도 밝혀져 있고 작품의 창작연대도 밝혀지고 있다(1758). 장화홍련전은 죽은 원귀가 치자에게 호소하는 이른바 阿娘型소설의 전형적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로 전처소생과 계모의 갈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콩쥐팍쥐전에는 계모를 사이에 두고 콩쥐와 팍쥐의 선악이 대결되는데 콩쥐는 결국 여러 어려운 난관을 선녀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감사와 결혼하게 되는 사실을 통해 권선징악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 작품은 세계적으로 분포된 신데렐라설화의 한국적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정을선전은 초반에는 계모 노씨의 학대를 받는 유추년이 을선과 결혼했다가 억울하게 죽어 그 원혼의 호소로 다시 추년을 재생시키는 사건이 중심이 되어 있고, 후반에는 조부인과 추년(유부인)의 갈등을 을선이 처결하는 공안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金仁香傳에서도 계모의 흉계로 죽은 인향자매가 안주부의 공청에 나타나 신원을 호소하고, 부사가 이 원사사건을 처결하는 과정은 장화홍련전과 방사하다. 이처럼 계모형은 거의 후반에 사건을 제삼자가 처결하는 公案型 또는 訟事型 모티프가 개재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지는데,

이는 중국소설에서도 包公說話(공안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소설의식의 확산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처첩간의 갈등이 중심이 되는 爭寵型小說로는 사씨남정기를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유한림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사씨와 교씨가 갈등을 보이지마는 결국 교씨의 패배와 사씨의 승리를 통해 권선징악적 도덕심을 경각시켜준다. 옥린몽은 여부인이 쟁총을 위해 유부인을 질투하고 모함하나 결국 유부인이 승리하고 여부인도 회개한다는 선종에 귀결된다. 조생원전(장학사전)도 주인공 혜성을 두고 김부인과 後主의 사랑다툼이 치열하여 후주의 간계가 득세하지만 결국 김부인이 다시 맞아들여져 가정의 화평을 되찾는다. 조성기(1638~1689)의 彰善感義錄은 花珍傳이라고도 하는데, 간악한 적모와 패륜의 형 그리고 요첩 사이의 갈등을 그려 효도와 우애 등 도덕적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李頤淳(1754~1832)의 一樂亭記에는 남정기·감의록의 소설적 교화를 칭양하고 있다.

9. 春香傳과 염정류의 발달

춘향전은 우리 문학 가운데 최고의 유산이다. 그뿐 아니라 각국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니, 세계적 문학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춘향전은 원래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다룬 전반의 애정설화와 후반의 암행어사설화가 별개로 전승되다가 창작자의 손에 의해 하나의 작품으로 고착된 것이다. 춘향전의 이본은 무려 백여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근원을 소급해 보면 연대상으로는 1754년(영조 30)의 晚華本春香歌가 가장 먼저이며, 다양한 형태의 필사본, 경판·완판 등의 방각본 외에, 廣寒樓樂府(윤달선)·水山廣寒樓記·南原古詞에 이르는 다양한 분화과정을 볼 수 있다. 춘향과 이어사의 사랑은 신분적 제약을 초월한 것이기에 높게 칭송되고, 암행어사의 등장은 봉건적 부패상을 과감히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사회소설로서의 역할까지 맡고 있다. 또한 춘향전은 춘향과 이도령의 신분적 대립, 월매와 춘향의 현실적 대립, 향단과 방자의 상전행위에 대한 대립, 이어사와 변학도의 관원의식의 대립 등 생동하는 대립구조가 가치를 한층 더 부각시켜 준다. 申在孝(1812~1884)의 판소리 여섯 마당 중 춘향가는 이미 宋晚載의 춘향가(觀優戲)에서 계승된 것으로, 그의 여섯 마당의 대부분이 근원설화 → 판소리 → 소설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희화화의 여과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淑香傳은 춘향전에 이미 숙향과 이선의 기사가 보이는 것을 보면 춘향전보다 연대가 훨씬 선행함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천상계에서 적강한 숙향과 이선이 결혼하기까지의 파란곡절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영웅소설적 성격을 지니면서 애정보다는 고행담이 더욱 돋보이는 작품이다. 淑英娘子傳은 숙영과 백선군의 사랑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숙영이 매월의 모함으로 자결하고 선군이 나중 낭자의 원수를 갚고 재생시키는 내용은 공안류의 기법에 재생화소를 개재시켜 애정의 강화소로 삼고 있다. 염정소설의 걸작으로는 또한 梁山伯傳과 白鶴仙傳을 들 수 있다. 양산백전에는 양생과 추랑이 사랑하다 이별하여 추랑은 심생에게 시집가고 산백은 상사병으로 자결하게 되나 끝내는 추랑의 산행 길에서 무덤 속의 산백을 재생시켜 못다한 사랑의 뒤를 잇는다. 이 작품은 중국의 ‘宣室志’·‘寧波志’나 ‘古今情史’의 설화를 개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무가에도 양산백설화가 영향을 주어 작품

으로 고착된 것이 있다. 백학선전은 주인공 백로가 길에서 우연히 여주인공 은하를 만나 그녀를 사모하는 뜻으로 가보인 백학선부체에 시를 지어주는데, 이를 인연으로 헤어졌던 두 주인공이 다시 결합한다는 내용이다. 운영전은 춘향전에 버금가는 염정소설의 걸작으로 운영과 외간남성인 김진사의 사랑을 통해 시대의식을 상징하는 양평대군에의 갈등을 보여주며, 양인의 죽음을 통해 비극적미를 극대화해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이진사전의 경패와 옥린의 사랑, 신유복전의 경패와 유복의 사랑, 김진옥전의 황금과 진옥의 사랑, 권용선전의 오소저와 용선의 사랑, 옥단춘전의 옥단춘과 혈룡의 사랑, 옥랑자전의 옥랑과 시업의 사랑, 채봉감별곡의 채봉과 필성의 사랑 등,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현실적 삶에서 가장 절실한 사랑의 모습을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형상화해준다. 고소설의 종수가 육백여편에 이르는 중 그 삼분지일의 절대수가 이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음도 애정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10. 野談類의 수용과 「傳」의 발달

시화·야담·일화·만록 등을 기록한 저술들을 모은 것으로 大東野乘이 있다. 수록내용은 육재총화·필원잡기·추강냉화·수문쇄록·패관잡기·용천담적기·견한잡록·송계만록·일사기문·송도기이·자해필담·부계기문에 이르는, 인조대까지 조선조 삼백년에 이르는, 59종의 저술이 집대성되어 있다. 한편 大東稗林은 더 방대하여 96종 169책이나 되는데 대동야승과는 20종이 중복되며 조선조 후기의 일기·만록들이 많다. 야담류로는 이미 골계전이나 어우야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조선조 후기에 내려오면 이른바 삼대야담집이라 할 수 있는 李羲平(1772~1839)의 溪西野談·靑丘野談·李源命(1807-1887)의 東野彙輯을 들 수 있다. 이중 가장 먼저 된 것이 계서야담인데 여기 수록된 작품은 300여편이나 되며 당대 민간에 유행하던 창의적 설화를 두루 수집하여 놓고 있다. 청구야담은 계서야담의 뒤를 잇는데 주로 하층민의 세태풍자적 일화가 많고 소설에 가장 접근하고 있는 한문단편들의 집성이라 하겠으며 6책 260편에 이른다. 동야회집은 8권 260편에 이르는데 어우야담·계서야담의 내용에서 추리고 저자의 습록을 덧붙태어 편차도 마련하고 체제도 정비하였다. 그밖에도 유사서로 동패낙송·명엽지해·어면순·성수패설·기문총화·차산필담 등 많은 야담잡기류들이 등장되어 민간의 일화·민담들이 수용 정리되고 편집되는데 이들은 소설발달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傳〉의 발달은 이미 고려사나 삼국사기 열전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 열전의 '金庾信傳'이나 '溫達傳'이나 '都彌傳' 같은 작품은 실전이 상당히 허구적 여과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의 문집 가운데는 반드시 〈傳〉이 남아 전하는데 허균의 '五傳'이 소설적 구성을 지녔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조선조 후기에 접어들면 이익(1681~1763)의 友鷄傳·瞎鷄傳, 안정복(1712~1791)의 女容國傳, 이덕무(1741~1793)의 管子虛傳·銀愛傳, 정약용(1762~1836)의 張天慵傳·曹神仙傳, 유본학의 烏圓傳·金風憲傳 등을 들 수 있다. 김려(1770~1821)의 蔣生傳·琉球王世子外傳·李安民傳 등과

李鈺(1770경)의 沈生傳·南靈傳·却老先生傳·捕虎妻傳 등 수많은 傳은 작가의 문학적 관심과 다양한 표현의 기법을 기리게 한다. 이들 중 여용국전(화장구)·관자허전(대나무)·오원전(고양이)·남령전(담배)·각로선생전(죽집계) 등은 의인화의 가전기법이 두드러지며, 일반적으로 ‘인물전’의 경우는 실전적 허구화의 다양성을 통해 소설 발달단계의 또다른 전화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실학시대를 기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漢文短篇들이 그 나름대로 소설의 발달과 병행되어 온 것도 독자에게 주는 다른 효용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11. 家門小說과 소설의 장편화

가문소설은 크게는 가정소설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겠으나 한 가정뿐 아니라 누대에 걸친 가문의 성쇠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명명된 이름이며, 구왕실 낙선재에서 주로 나왔으므로 樂善齋小說이라고도 하며, 분량으로 보아 장편이므로 大河小說이라고도 한다. 또한 한편에만 그치지 않고 2부작·3부작 등으로 이어지는 작품이 많으므로 連作小說이란 명칭도 가능하다. 가문소설은 개인의 전기인 행장→열전→가문록 등으로 발전하여 소씨삼대록·이씨삼대록 등의 가문록소설로 발달하는데,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는 이미 국문으로 된 유씨삼대록을 읽고 있는 독자애기를 기술한 대문이 있어 흥미를 끈다. 정병욱은 일찍이 낙선재문고의 목록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1969) 여기서 보면 100여편의 작품 중 창작이 절반 가량이고 번역도 30여편에 이른다고 하고 있다. 그는 ‘이조말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이라는 글(문화비평 1969)에서 주된 제작 연대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엽으로 보고 작품의 내용은 조선 후기사회의 변모와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족소설과 판소리계 서민소설의 중간위치에 놓이는 작품으로 보았다. 비교적 문학성이 높고 장편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琮月會盟宴(180책)·明珠寶月聘(100 책)·尹河鄭三門聚錄(100 책)·明行貞義錄(70 책)·花氏忠孝錄(37 책)·河陳兩門錄(21 책)·玉鴛重會錄(21 책)·劉氏三代錄(20 책)·玉鸞奇錄(19 책)·報恩奇遇錄(18 책)·雙鉤奇逢(13 책)·玄氏兩熊雙麟記(10 책)·泉水石(9 책)·落泉登雲(5 책)·洛城飛龍(2 책)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완월회맹연은 180책이나 되는 대 장편으로 원고 매수로 추산하면 이백자 약 3만매의 분량이 되어 세계적으로도 대장편의 으뜸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 가운데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엄씨효행청행록은 삼부 연작으로 되어 있고 쌍천기봉은 이씨세대록으로 연결되고, 이씨세대록은 다시 인봉쌍계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씨양웅쌍린기는 명주기봉으로 연결되고, 명주기봉은 다시 명주옥연기합록으로 이어지고 있다. 벽허담관제연록이 별전으로 하씨선행후대록이 있음도 연작의 한 보기이다. 한편 이들 가문소설은 창작과 변안 또는 번역작품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많은데, ‘第一奇諺’의 서문에 한국소설로 유씨 삼대록·조씨 삼대록·임화정연·곽장양문록·화산선계록·벽허담·완월회맹연·명주보월빙 등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궁중사회의 독자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장편이 많이 창작되어 읽히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소설사의 한 전환을 보는 듯하다(정규복, 제일기언에 대하여, 1984).

12. 고소설 말기의 諧謔的 작품들

판소리소설에는 농민 기녀 하층관료 등 주로 서민적 군상들이 작품의 주역이 되어 이들의 일상적 삶과 꿈을 희화화하고 있다. 이점은 송만재의 열두마당이나 신재효의 여섯마당도 동일하다. 한편 고소설 말기의 작품으로는 裴裨將傳·鐘玉傳·李春風傳·三仙記·雍固執傳·彩鳳感別曲·青年悔心曲 등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세태소설로도 일컬어지는 작품들로서 작품 가운데 고의적 사건들을 엮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비웃고 해학적으로 변모시키는 양상을 띠게 된다. 배비장전은 판소리 배비장타령이 소설화된 작품으로, 배비장이 여색에 유혹되지 않겠다고 장담하나 제주기생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망신당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위선적 인간성을 해학적으로 잘 보여준다. 작품의 넘치는 웃음, 극적 장면처리 등을 통하여 당시 사회의 전반적 인간상을 풍자한다. 이 작품은 원래 골계전의 미케설화와 동야회집의 발치설화가 구성의 근간이 된다. 종옥전은 운와 목태림(1782~1838)의 작으로 알려져 있다. 종옥이 기녀 향란에게 끝내는 유혹당하여 계약으로 꾸며논 향란의 무덤에 통곡하고 정사를 벌이는 내용은, 마치 梅花打命이나 오유란전과도 비슷하며, 양녕과 정항의 사랑을 해학적 수법으로 다룬 정항전과도 동일하다. 이춘풍전에서 춘풍은 평양기생 추월과 놀아나다가 감사의 비장으로 변장한 아내의 도움으로 허식과 위선을 벗고 본색을 되찾게 된다. 그러나 춘풍의 허랑방탕한 성격은 여타의 판소리계 인물들처럼 해학적으로 위장되어 있어, 독자에게 거부감이 없는 인물이다. 삼선기도 위선적 도학자의 근엄한 허위성을 폭로한 작품이라는 점에서는 시점이 동일하다. 옹고집전에서는 부자 이면서도 인색하고 부도덕한 옹고집이 중을 확대하다가 그 중이 만들어낸 가짜옹고집에게 쫓겨나 끝내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된다. 옹고집이 악덕 서민부유층을 상징하는 인물로 본다면 그가 선량한 서민의 반감을 사는 사회적 현상을 볼 수 있어, 흥부전계의 후대 아류작품으로 창작된 듯하다. 채봉감별곡은 우선 문체에서 가사(운문)의 삽입이 주목된다. 금고기관이 '왕교란백년장한'의 번안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 채봉과 장필성의 순애보의 이면에 딸을 팔아 자신의 출세욕을 충족시키려는 김진사로 대표되는 부패된 사회상을 폭로하는 특징을 보는데, 오히려 신소설로 보려는 경향이 짙다. 청년회심곡도 가사가 삽입되고 진성과 송도기생 월랑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란 점에서는 채봉감별곡과 유사하다.

이 무렵의 작품에는 기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음도 공통적이다. 어쨌든 이러한 고소설 말기의 작품들에서는 이전의 딱딱하기만 하던 풍자의 강도를 누그러뜨려 해학과 골계의 미학에 힘입어 주인공들의 위선을 꼬집고 사회의 바람직한 변모를 제시해주는 특색을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鄭鈺東, 洪吉童傳研究, 문호사, 1961.
- 金東旭, 春香傳研究, 연세대출판부, 1965.
- 鄭鈺東, 梅月堂金時習研究, 신아사, 1965.
- 李家源, 燕岩小說研究, 을유문화사, 1965.
- 鄭鈺東, 古代小說論, 형설출판사, 1966.
- 朴晟義, 古代小說論과 史, 일신사, 1973.
- 丁奎福, 九雲夢研究, 고려대출판부, 1974.
- 金戊祚, 西浦小說研究, 형설출판사, 1974.
- 金鉉龍, 韓中說話小說比較研究, 일지사, 1976.
- 丁奎福, 九雲夢原典의 研究, 고려대출판부, 1977.
-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 지식산업사, 1977.
- 史在東, 佛敎系 國文小說의 形成過程研究, 아세아문화사, 1977.
-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지식산업사, 1979.
- 李樹鳳, 家門小說研究, 형설출판사, 1978.
- 黃滄江, 朝鮮王朝小說研究, 단국대출판부, 1978.
- 蘇在英, 壬丙兩亂과 文學意識, 한국연구원, 1980.
- 柳鐸一, 完板坊刻小說의 文獻學의 研究, 학문사, 1981.
- 金起東, 韓國古典小說研究, 교학사, 1981.
- 成賢慶, 韓國小說의 構造와 實相, 영남대출판부, 1981.
- 李相澤, 韓國古典小說의 研究, 중앙출판, 1981.
- 崔三龍, 韓國初期小說의 道仙思想, 형설출판사, 1982.
- 崔雲植, 沈淸傳研究, 집문당, 1982.
- 薛重煥, 金鰲新話研究,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3.
-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지식산업사, 1983.
- 蘇在英외, 韓國古典小說研究, 이우출판사, 1983.
- 金烈圭외, 金萬重研究, 새문사, 1983.
- 李相澤외, 韓國古典小說研究, 새문사, 1983.
- 李慶善, 三國志演義의 比較文學의 研究, 삼영사, 1983.
- 金用淑, 恨中錄研究, 한국연구원, 1983.
- 李相翊, 韓國小說의 比較文學의 研究, 일지사, 1983.

- 金一烈, 朝鮮朝小說의 구조와 의미, 형설출판사, 1984.
- 林榮澤, 韓國文學史의 視角, 창작과 비평사, 1984.
- 朴箕錫, 朴趾源文學研究, 삼지원, 1984.
- 金東旭의, 韓國古小說入門, 개문사, 1985.
- 大谷森繁, 朝鮮朝後期 小說讀者研究,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5.
- 徐大錫, 군담소설의 구조와 의미, 이대출판부, 1985.
- 金光淳, 韓國擬人小說研究, 새문사, 1987.
- 禹快濟, 韓國家庭小說研究,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 張孝鉉, 徐有英文學의 研究, 아세아문화사, 1988.
- 姜東樺, 熱河日記研究, 一志社, 1988.
- 柳鐸一, 韓國文獻學研究, 아세아문화사, 1989.
- 車溶柱, 韓國漢文小說史, 아세아문화사, 1989.
- 蘇在英, 國文學論叢, 승실대출판부, 1989.
- 柳鍾國, 韓國夢遊錄小說의 研究, 아세아문화사, 1989.
- 蘇在英, 企齋記異研究,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0.
- 金光淳, 韓國古代說史와 論, 새문사, 1990.
- 한국고소설연구회, 韓國古典小說의 照明, 아세아문화사, 1990.
- 고소설편찬위원회, 韓國古典小說論, 새문사, 1990.
- 金鎮世편, 韓國古典小說作品論, 집문당, 1990.
- 閔泳大, 癸丑日記研究, 한남대출판부, 1990.
- 鄭宗大, 艷情小說構造研究, 계명문화사, 1990.